



 홍성문화원



- 논 단 | 홍성의 지명 변천 탐구(서부면)1 (조원찬)  
| 유교의 현재화와 우리 교육2 (김경수)  
| 용어(用語)로 바라보는 풍수지리(風水地理) (김시환)
- 홍성의 전설 | 전설로 전해오는 우리고장 지명 유래 (김정현)
- 기 행 문 | 상대 자연이 품고 있는 곳, 캐나다 (정명순)
- 나의 삶 나의 예술 | 현자 시인 (조성미)
- 홍성의 문화예술이리 | 보광서각회 (서다래)
- 시 & 수 필 | 벚꽃이 지기 전에 (강은미)  
| 마음의 향기 퍼진다 (장광호)  
| “가고파” <보고파> (주호창)  
| 언덕 위에 바람은 길을 열고 (이현숙)  
| 소금꽃 (주선미)
- 지역문화행사 | 홍주성역사관 개관 10주년 특별 기획전 (한기원)  
| 홍주성역사인물축제 - 고암 이응노편 (한기원)  
| 제23회 전국 남·여 시조 경창대회 (한기원)  
| 제19회 전국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 (한기원)

[홍성문화 표지] 2020년 홍성군 문화관광 디카시 공모전 수상작

+



## 용봉산 일출

서 은 희

남한의 금강 용봉산\*  
그 많고 많은 바위를 지나  
정상에 오르는 길엔  
햇볕보다 바람이 먼저  
마중 나왔다

\*용봉산: 홍성에 있는 명산으로 기암괴석이 많아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이다.

## 문화비전 선언

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.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.

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,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,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.

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, 우리 문화의 세계화,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.

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'문화원의 날'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.

-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.
-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.
-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.
- 지방문화원은 일회적·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·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.
-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.

2007년 10월 10일